

“행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제목 제목입니다”

‘브라보 나의 인생’

교토부 난탄시 - 후나고시 산지씨(93)

‘제목삼창’과 친하게 지내는 교토의 할아버지, 후나고시 산지씨(93) 체험담

깊은 기원으로 몸에 밴 친절로 많은 친구가 따른다.

교토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년 시절부터 몸이 약하고, 아픈 등을 낮게 해주던 것은 밭일로 마디진 어머니의 손이었다.

친척의 자전거가게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전쟁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징병명령으로 마이즈루(도시이름)의 군사공장에 동원되어 나갔다. 눈바람 속에서 구축함(배종류)의 용접을 하던 중, 결핵에 걸렸다.

전후, 훌훌단신으로 자전거가게를 일으켰다. 펑크수리부터 시작했다.

가게 앞에 새로운 자전거를 늘어놓을 정도로 고객은 늘었지만, 결핵에 걸린 몸은 버틸 수 없었다. 타키교(지역명)에서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가게 손님으로부터 창가학회의 좌담회에 초대받은 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1955년 사제의 길을 걷는 결심을 아내와 단단히 굳혔다.

처음 제목을 불렀을 때의 감격은 ‘오래 기다린 연인을 만난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솟구치는 기쁨은 온몸으로 흘렀다. ‘대단한 신심이 지 않은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라며. 그것만으로 양쪽 이웃집을 입회시켰다.

도다 제2대 회장, 이케다 SGI회장과의 만남을 새긴 하계 강습회, 어서강의, 그리고 오사카대회.

비가 오는 도중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케다 청년실장의 목소리를, 꿈쩍도 하지 않고 들었다. ‘원수를 갚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행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상대의 가슴속에 뛰어들어 신심을 말했다.

넘쳐흐르는 투혼은 구습(오래된 관습)의 벽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회활동으로 전차를 놓치고만 남은 역의 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보냈다. ‘어본존은 절대적이다.’라며 자신을 격려하고 얼어붙은 손에 입김을 불어넣어 따듯하게 만들었다.

60년간의 신심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제자리걸음도 없었다. 오직 전진이었다.

결핵을 치료하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자전거점의 간판을 내리지 않았다. 아내를 간호한 20년의 세월도 어서에 비추어 ‘감사로 가득하다’라고, 수많은 시련을 얼굴표정이 바뀔 정도의 신심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나는 제목을 올리면 기뻐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산지씨의 말은 많은 벗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제목에 부르는 방법

심신의 근간은 ‘무의왕신(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제목을 불러 생명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대적 행복에 치우치고 맙니다.

생명을 올리는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어본존께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애편지를 쓸 때,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제목에 마음을 담습니다.

“지금(只今)도 일념무명(一念無明)의 미심(迷心)은 닦지 않은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진여(法性眞如)의 명경(明鏡)이 되느니라”(어서384쪽)의 그대로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목, 제목입니다.

▷보살의 체면

소설 신·인간혁명에 “위대한 운동은 ‘무관심’ ‘조롱’ ‘비난’ ‘억압’ ‘존경’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지만, 절복도 똑 같습니다”.

먼저 “행복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경계하며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세이코 신문을 드리러 왔다고 하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참 열심히도 하시네요.” 하고 비웃습니다.

이어서 신심을 이야기하면 “세간의 평판이 좋지 않다.”며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불정보살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몇 번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창가학회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법화경(法華經)을 굳이 설(說)해 듣게 할지어다. 믿는 사람은 부처가 될 것이며 비방(誹謗)하는 자(者)는 독고(毒鼓)의 연(緣)으로 되어 부처가 되는 것이니라.”(어서 522쪽)라는 대성인의 말씀처럼 이 순간이 바로 ‘억압’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보살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한한 보물의 산

불법은 무한한 보물로 가득한 산입니다.

이 산으로부터 얼마나 보물을 꺼낼지는 그 사람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본존을 믿는 일념의 힘’입니다.

“일체법(一切法)은 개시불법(皆是佛法)이니”(어서 563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전 재산은 본존의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좋게 만드는 근본은 신심밖에 없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때에는 어본존에게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본존이 그 사람의 신심을 보고 필요한 만큼 내어 줍니다.

어본존은 사실 ‘산더미만큼 돈을 주고 싶지만, 돈 때문에 신심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필요한 만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방법(方法)을 생각하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어본존에게 맡기면 곤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의 간호 생활

3년 전 아내인 마사에를 떠나보냈습니다. 89살이었습니다. 심장이 나뻐기 때문에 20년간 간호를 했습니다. 요리나, 세탁, 목욕은 물론 기저귀도 제가 갈아주었습니다.

불법의 눈에서 보면, 제가 간호 같은 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간호하는 쪽, 아내가 간호를 받는 쪽.

제가 간호를 받는 쪽이었다면 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심덕분에 간호를 받는 쪽에서 간호를 해주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이면 충분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사에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죽음은 새 단장

이 나이가 되자,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죽음을 ‘육신의 새 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건강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보물만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저편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겠지요.

우선 새로운 육신을 사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와 외모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음의 재보가 엄청나면 곳간의 재보도 살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을 최고의 상태로 사고 이 세계에 돌아 올 겁니다.

매우 잘생기고 대 부호인 남자로 태어나면 좋겠네요. 대백우거(大白牛車)가 내 차로 된다면 쇼핑이 즐거워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환회’인 것입니다.

“과거(過去)의 인(因)을 알려고 하면 그 현재(現在)의 과(果)를 보라, 미래(未來)의 과(果)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現在)의 인(因)을 보라” (어서 231쪽)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쇼핑하고 싶으면, 마음의 재보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제목을 많이 불러서 솟아난 용기로 절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상쾌하게, 상쾌하게 내세로 향해가자고 생각합니다.

- 세이쿄 신문(2016.6.30.) 내용 중에서